

제28호

주간농사정보

2026. 7. 13.~7. 19.



농촌진흥청에서는 금주에 꼭 실천해야 할 주요 농업기술 정보를
농업인들에게 매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

|| 목 차 ||

제1장	농업정보		1
제2장	벼		4
제3장	밭 작 물		8
제4장	채 소		10
제5장	과 수		13
제6장	화 훼		17
제7장	특용작물		20
제8장	축 산		23
제9장	양 봉		28

요 약

분야	핵심기술 및 정보
농업 정보	• (기상) 기온은 평년(23.7~25.1℃)보다 높겠고, 강수량은 평년(50.1~76.1mm)보다 대체로 많겠음 *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 • (저수율) 51.0% (평년 64.0%의 79.7%) * 기준: 7. 6. 10:00 기준
벼	• (본답 관리) 벼 이삭이 생기는 시기~팔 때까지 논물 걸러 대기 실시, 이삭거름은 이삭 패기 전 전용 복합비료 사용 • (병해충방제)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로 사전 예찰과 초기 방제 실시 • (집중호우 대비) 논·밭두렁, 제방, 배수로 등 사전점검 및 정비
밭작물	• (여름철 관리) 스프링클러 가동, 토양 피복으로 지온 상승 억제, 고온성 해충 발생 증가에 대비해 예찰 및 방제함 • (콩) 생육을 고려한 웃거름 시비, 병해충 방제 철저, 나방류 적기 방제 • (옥수수) 적기 수확, 풋옥수수 소비자 공급까지 저온 유지 • (참깨/들깨) 역병, 시들음병, 잎마름병/잎말이나방 위주 방제
채소	• (고추) 이병주 제거 후 탄저병 방제, 웃거름 주기, 적기 수확, 엽면시비 등 • (고랭지 배추·무) 무름병, 석회 결핍, 진딧물 방제 등 폭염 대비 관리 철저 • (양파) 7월말~8월 고온기에 40일 이상 육묘상 태양열 소독 실시 • (시설채소) 7~8월 딸기 자묘육성 및 화아분화 촉진, 차광, 환기 등 실시
과수	• (햇별데임) 가지배치 및 과실방향 조정, 관수관리, 미세살수 및 차광망설치 등 • (과원관리) 관배수 철저로 열과 방지, 배수로 정비, 경사지 과원 토양유실 방지 • (하계전정) 웃자람가지 제거로 일조량 확보, 7월 중순경 하계전정 실시 • (병해 방제) 겹무늬썩음병, 갈색무늬병, 잣빛무늬병, 노균병 등 사전예방 약제 살포
화훼	• (국화 하절기 관리) 고온피해로 발생하는 관생화 증상을 막기 위해서 시설 내 주간 온도는 30℃ 이하, 야간온도는 10℃ 이상으로 관리
특작	• (인삼) 포장의 유기물 함량을 2% 정도로 하여 적습 유지, 피복물 관리 철저 • (약용작물) 배수로 정비, 부초 및 부직포 멀칭으로 경사지 관리 등 • (버섯) 재배사 외부를 튼튼한 끈으로 1.5m 간격으로 고정 등
축산	• (집중호우) 장마대비 축대 보수 및 배수로 정비, 전기 안전 점검 실시 • (가축관리) 축사환경 적정 온습도 관리 및 청결 유지, 충분한 깨끗한 물 급여 • (차단방역) 농장 세척 및 소독, 방역 수칙 준수 등 가축질병 유입 방지
양봉	• (장마철 봉군관리) 무밀기와 비로 인해 일벌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설탕물 공급을 벌무리의 세력에 따라 매주 2회 정도 1회에 1~2ㄱ씩 공급



제1장 농업정보

1 기상 정보

○ 최근 1개월(2026. 6. 4.~7. 1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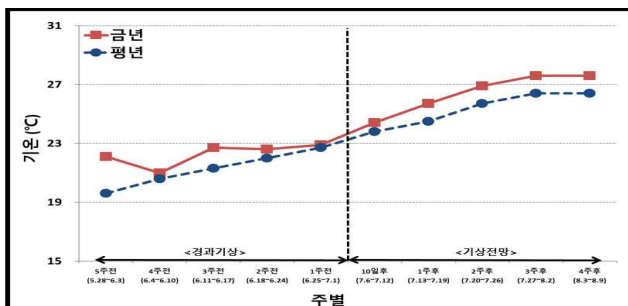
- 기온은 22.3℃로 평년*(21.7℃)보다 0.6℃ 높았음 * 평년: 30년('91~'20) 평균
- 강수량은 106.8mm로 평년(154.6)보다 47.8mm 적었음(69.1%)
- 일조시간은 200.8시간으로 평년(168.7)보다 32.1시간 많았음(119.0%)

○ 1개월 전망(2026. 7. 13.~8. 9.) * 기상청: 2026. 7. 1. 11:00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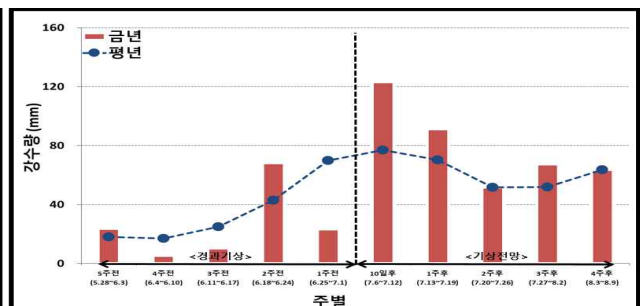
-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
 - *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덥고 습하겠음
-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음
 - * 대체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,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(8월 1주)

구분	평균기온	강수량
7월 2주 (7.13~7.19)	평년(23.7~25.1℃)보다 높겠음	평년(50.1~76.1mm)보다 대체로 많겠음
7월 3주 (7.20~7.26)	평년(24.8~26.4℃)보다 높겠음	평년(29.6~63.2mm)과 비슷하겠음
7월 4주 (7.27~8.2)	평년(25.7~26.9℃)보다 높겠음	평년(22.6~60.9mm)보다 대체로 많겠음
8월 1주 (8.3~8.9)	평년(25.4~27.0℃)보다 높겠음	평년(23.1~67.4mm)과 비슷하겠음

○ 최근 기상 경과와 전망



<기온>



<강수량>

* 자료제공: 국립농업과학원 심교문 연구관(063-238-2518)

2

저수율 및 강수량 현황

□ 전국 저수율: 51.0%(평년 64.0%의 79.7%)

* 기준일: 7. 6. 10:00

(단위: %)

년도 \ 시도	전국	인천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금년(A)	51.0	49.7	47.4	57.0	43.9	79.9	48.9	48.9	42.9	56.7	53.6
전주대비 (7. 3.)	(↑0.3)	(↓0.2)	(↑0.3)	(↓1.9)	(↓1.2)	(↓3.1)	(↓0.4)	(↑0.6)	(↑0.4)	(↑1.5)	(↓0.6)
평년(B)	64.0	61.1	60.2	66.9	65.9	68.7	63.2	61.7	62.5	63.5	66.1
평년대비 (A/B)	79.7	81.3	78.7	85.2	66.6	116.3	77.4	79.3	68.6	89.3	81.1

□ 2026년 누적 강수량: 425.6mm(평년 525.6mm의 81.0%)

(단위: mm)

년도 \ 월	1	2	3	4	5	6	7/6 까지	7/7 이후	8	9	10	11	12	합계
금년(A)	4.3	17.3	65.3	79.7	125.4	95.4	38.2							425.6
평년(B)	26.3	35.7	56.5	89.7	102.1	148.2	67.1	229.4	282.6	155.1	63.0	48.0	28.0	1,331.7
A/B(%)	16.3	48.5	115.6	88.9	122.8	64.4								32.0

○ 시도별 누적 강수량(2026. 1. 1.~7. 6.)

(단위: mm)

년도 \ 시도	평균	인천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금년(A)	425.6	256.1	275.2	380.7	339.7	380.4	402.9	691.4	339.7	539.0	915.2
평년(B)	525.6	407.9	439.6	473.7	476.4	482.3	522.5	624.2	459.6	666.4	800.3
A/B(%)	81.0	62.8	62.6	80.4	71.3	78.9	77.1	110.8	73.9	80.9	114.4

○ 최근 2개월 누적 강수량(2026. 5. 7.~7. 6.)

(단위: mm)

년도 \ 시도	평균	인천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금년(A)	240.0	175.5	181.6	231.0	196.3	228.5	204.8	393.9	183.6	286.2	508.8
평년(B)	300.2	254.2	271.5	274.2	283.8	285.6	299.3	339.3	264.1	364.3	392.2
A/B(%)	79.9	69.0	66.9	84.2	69.2	80.0	68.4	116.1	69.5	78.6	129.7

<출처> 한국농어촌공사

참 고

이상 기후 감시 · 전망 정보

□ 최저·최고 기온과 이상기온 전망 (2026. 7. 13.~7. 19.)

- 최저기온은 평년(20.5~21.7℃)보다 높겠으며, 이상저온(19.0℃ 미만) 발생 확률은 평년보다 낮은 5%, 이상고온(23.3℃ 초과) 발생 확률은 평년보다 높은 25%
- 최고기온은 평년(27.7~29.5℃)보다 높겠으며, 이상저온(25.6℃ 미만) 발생 확률은 평년보다 낮은 5%, 이상고온(31.5℃ 초과) 발생 확률은 평년보다 높은 20%



○ 주요 지점별 이상저온 및 이상고온 기준

지 점	이상저온 기준 최저기온	이상고온 기준 최고기온	지점	이상저온 기준 최저기온	이상고온 기준 최고기온
서울	20.2 °C 미만	30.8 °C 초과	인천	19.7 °C 미만	29.9 °C 초과
춘천	19.1 °C 미만	31.3 °C 초과	강릉	18.0 °C 미만	33.6 °C 초과
대전	20.5 °C 미만	30.7 °C 초과	청주	20.5 °C 미만	32.2 °C 초과
광주	21.3 °C 미만	32.3 °C 초과	전주	21.0 °C 미만	33.0 °C 초과
대구	20.0 °C 미만	34.3 °C 초과	울산	19.4 °C 미만	33.3 °C 초과
부산	19.6 °C 미만	30.1 °C 초과	제주	21.7 °C 미만	32.3 °C 초과

※ 막대그래프는 주 평균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낮음비슷높음의 확률 전망을 의미하며, 합은 100

※ 평년(1991~2020년)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이상저온은 최저 · 최고 기온이 10퍼센타일 미만, 이상고온은 최저 · 최고 기온이 90퍼센타일 초과 범위로 정의

※ 이상저온, 이상고온의 평상시 발생 확률은 10%이며, 각각 낮음과 높음의 확률에 포함되어 있으며, 발생 확률이 30% 이상인 경우 해당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, 평상시 보다 약 3배 이상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



퍼센타일은 평년 동일 기간에 발생한 기온을 비교하여 작은 순서대로 몇 번째 인지 나타내는 백분위 수

<출처> 기상청/ 기후예측/ 1개월 전망(7월 2일 발표)

* 자료제공: 농촌진흥청 이우일 지도사(063-238-1046)



제2장 벼

1

본답 관리

○ (이삭이 벨 때~팠 때까지) 벼가 각종 환경에 아주 예민하며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, 항상 담수 상태를 유지하여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 걸러대기 실시

- 논물 걸러대기는 뿌리활력 증대와 유해 물질 제거를 촉진함

<벼 생육 단계별 물관리 요령>

생육기간	물 대는 요령	물깊이(cm)	효 과
수잉기 (이삭이 생기는 시기)	물 걸러대기(이삭패기 30일 전~ 이삭팠 때, 3일 관수/2일 배수)	2~4	뿌리활력 증대, 유해물질 제거 촉진
출수기 (이삭이 나오는 시기)	보통으로 댈 것	3~4	꽃가루받이 촉진
등숙기 (이삭이 익는 시기)	물 걸러대기 (3일 관수/2일 배수)	2~3	여름 촉진, 뿌리기능 유지, 유해물질 제거
낙수기 (물 때는 시기)	완전 물떼기(이삭패기 후 30~35일 전후)	0	품질 양호, 농작업 편리

※ 품종, 지대별 이앙 적기 차이, 가뭄에 의한 이앙 지연 등에 따라 생육단계에 차이가 있음

○ (이삭거름) 이삭이 패기 전 전용 복합비료로 사용

- 일반재배: 이삭 패기 25일 전 10~11kg/10a(N-K복합비료/18-0-18)
- 최고품질 쌀: 이삭 패기 15일 전 7~8kg/10a(N-K복합비료/18-0-18)

2

병해충 방제

□ 도열병, 잎집무늬마름병

- (잎도열병) 발생이 우려되는 조생종 벼의 경우 출수 전에 적용약제로 초기 방제하고, 잦은 강우 시에는 추가로 방제함
 - 7월 중순 이후에도 잎도열병 발생이 지속되는 경우 7월 하순부터 이삭이 켈 것으로 예상되는 조생종은 이삭도열병으로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삭 패기 전까지 적용약제로 방제해 줌
- (잎집무늬마름병) 고온 다습한 환경과 조기 이앙, 밀식재배, 비료를 많이 줄 때 발생이 많고 병균에 의해 잎집에서 반점 또는 얼룩무늬 증상이 나타나며 최고 50%까지 수량 감소가 발생함
 - 벼가 자라면서 점차 병반이 윗잎으로 확산하므로 벼대 아래 부위를 잘 살펴본 후 도열병과 동시 방제함



잎도열병 발병포장



이삭도열병 증상



잎집무늬마름병 증상

□ 먹노린재, 벼멸구, 흰등멸구, 흑명나방

- (먹노린재) 7~8월에 약충과 성충이 벼 줄기에 구침을 박고 흡즙함
 - 심하면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므로 먹노린재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서는 철저한 예찰과 방제 필요
 - 작은 충격이나 소리에 도 줄기 속이나 물속으로 숨어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논물을 빼고 해 질 무렵 적용약제를 살포함
- (벼멸구, 흰등멸구) 초기 방제가 중요하므로 멸구가 날아온 서남해안 지역에서는 벼대 아래쪽을 잘 살펴보고 발생이 많으면 적용약제로 방제함
- (흑명나방) 논을 살펴보고 포장에 피해 잎이 1~2개 정도 보이거나 벼 잎이 세로로 말리는 유충 피해증상이 보이면 적용약제 살포함



< 벼 먹노린재 >



<벼멸구 성충- 단시형, 장시형>



<흑명나방 성충 및 유충>

< 병해충 기본 동시 방제 모형 >

구분	약효가 긴 입제·수화제 기준	일반 유제·분제 기준
7월 하순 ~ 8월 상순	▶ 잎집무늬마름병+벼멸구(흑명나방)+이삭도열병 - 중만생종 : 입제 - 조생종 : 수화제	▶ 잎집무늬마름병+이삭도열병(조생종)+벼멸구
8월 중순	▶ 이삭도열병(중만생종 : 수화제)+이화명나방	▶ 이삭도열병(중만생종)+벼멸구(이화명나방, 흑명나방)

3

벼농사 집중호우 대비 관리대책

○ 사전대책

- 논·밭두렁, 제방 등이 붕괴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및 정비
- 배수로 잡초 제거 및 배수 시설 정비로 원활한 배수 유도
- 집중호우 예보가 있는 경우 미리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고 붕괴 예방을 위해 비닐 등으로 피복
- 침수 상습지 질소질 20~30% 감량, 칼리질 20~30% 증시

○ 사후대책

- 침·관수 논은 서둘러 앞끝이 물 위에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
- 물이 빠질 때는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양금과 오물 제거
- 물이 빠진 후에는 새로운 물로 걸러 대기를 하여 뿌리의 활력 증진
- 침·관수 논은 도열병, 흰잎마름병,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

* 자료제공: 국립식량과학원 이승규 지도사(063-238-5212)

( 맨 앞으로)



제3장 발 작 물

1 여름철 기상재해 관리요령

□ 폭염기 발작물 관리

- (방법) 스프링클러 가동(발생 시), 쪼 · 풀 등으로 작물 뿌리 주위를 덮어주어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 상승 억제
 - 물 빠짐이 좋은 경사지 토양은 비닐 피복 처리로 수분 증발 방지
- (충해 관리) 고온성 해충(담배거세미나방 등) 발생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숙 유충을 계속 예찰하고, 이른 아침이나 해진 후 작용 기작이 다른 적용약제를 교호 살포함

□ 집중호우 시기의 발작물 관리

- (침수된 밭 관리) 침수가 있는 경우 가급적 조기에 침수된 물을 빼주고, 흙 양금은 깨끗한 물로 씻어주어 동화작용을 촉진 시킴
- (침수 후 병해충 관리) 침수 후에는 병충해 방제약제를 살포함
 - 참깨 돌림병, 시들음병, 땅콩 갈색무늬병 등 병해충을 방제함
- (침수 후 관리) 물을 뺀 후 뿌리가 노출된 곳은 복주기 작업 실시

2 콩

- (논콩 생육관리)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구를 정비하고 너무 무성한 포장은 본 잎이 5~7매 나왔을 때 순지르기를 통해 도복을 방지하고 유효 생육을 유도해 주도록 함
 - 개화 시 콩의 생육을 고려하여 콩알의 비대가 불량할 경우 요소 비료를 4~6kg/10a 사용함

- (병해충 방제) 동시 방제가 가능한 약제를 혼합하여 뿌려주되 농약을 2종류 이상 섞어 사용할 때는 혼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함, 나방류 발생 포장은 적기 방제를 함

3 옥수수

- 풋옥수수의 수확적기
 - 단옥수수는 수염이 나온 후 20~25일, 초당옥수수는 23~25일쯤 수확하는 것이 당도와 맛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함
 - 찰옥수수는 온도에 따라 여문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수염이 나온 후 24~25일이 적당함
- (수확 환경) 수확 후 수분이 증발하면서 품질이 나빠지므로 이삭 자체의 온도가 낮고 수분도 많은 이른 아침에 수확
- (보관관리) 풋옥수수의 품질 유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저온을 유지하면서 수확 당일 짧은 시간 안에 공급하되, 부득이한 경우 급랭으로 냉동보관·저장하는 것이 좋음

4 참깨 · 들깨

- (참깨 병해충) 역병, 시들음병, 잎마름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 위주 적용약제를 10일 간격으로 4회 정도 뿌려줌
- (들깨 병해충)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잎말이나방이 많이 발생하므로 시설재배 시 들깨잎을 채취하고 적용약제 살포

* 자료제공: 국립식량과학원 이다람 지도사(063-238-5223)

( 맨 앞으로)



제4장 채 소

1

노지 고추

□ 탄저병 방제

- (방제) 6월 상순부터 10일 간격으로 예방 위주로 과실에 약액이 잘 묻도록 밑에서 위로 적용약제를 뿌려줌
 - 비가 온 후에는 반드시 방제
 - 병든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한 후 적용약제 살포

□ 웃거름 주기

- (2~3차 웃거름) 1차 후 30~40일 간격으로 헛골에 뿌려줌
 - 점적관수가 설치된 포장은 800~1,200배의 물비료를 만들어 줌

□ 장마 이후 폭염 대비

- (장마 이후) 물빼기, 복주기, 적기 수확 및 건조 등 실시
 - 생육이 연약한 포장은 요소 0.2%(20L에 40g)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를 5~7일 간격으로 2~3회 살포
- (폭염 대비) 적정 토양수분 유지, 착과 관리, 엽면 시비 등
 - 지나치게 건조할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주면 질소와 칼리의 흡수가 급격히 늘어나 석회 흡수를 저해, 물은 조금씩 자주 줌



탄저병 이병과 제거



점적관수 시설



부식포 피복

2

고랭지 배추·무

☐ 폭염 대비

- (시설재배) 천창 및 측창을 최대한 개방하고 차광하여 온도상승 억제
- (석회결핍) 생육기 중 결핍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면 결구 초기에 염화칼슘 0.3%액을 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잎에 살포
- (무름병) 매년 발생하는 포장은 2~3년 동안 돌려짓기, 균형시비하며, 약제 방제는 5~6잎 이후, 7~10일 간격으로 지제부까지 살포함



정상 배추



칼슘결핍 증상



무름병 증상

- (순무모자이크바이러스) 진딧물에 의해 30초~10분 이내 전파
 - 포장 주변의 잡초 및 이병주 제거하여 소각, 진딧물 방제 등

3

양파

☐ 육묘상 태양열 소독

- (태양열 소독 효과) 양파 노균병 및 갈록병 등을 예방하기 위함
 - 지온을 45~55℃까지 상승시켜 병원균, 고자리파리알, 잡초 씨앗을 죽임
 - 모잘록병 93.5%, 분홍색 뿌리썩음병 99%까지 줄임
 - 노균병 발생은 0.01%로 거의 피해가 없지만 무소독 포장은 3.2% 발병
 - 잡초 발생을 억제하여 88% 제초 노력 절감 효과 있음

- (소독 방법) 7월 하순~8월 고온기에 묘상 10a당 미숙퇴비 3,000kg과 석회 200kg을 살포하여 경운한 후, 묘상을 만들고 육묘상이 포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물준 후, 투명 비닐로 완전히 덮어 40일 이상 실시
- (주의 사항) 찢어진 비닐은 사용하지 말고, 비닐 가장자리와 흙이 잘 밀착되도록 하며, 노균병 발생 우려 시 두둑과 고랑을 같이 덮음

4

시설채소

□ 딸기 포트 육묘 관리(7~8월 자묘 육성 및 화아분화 촉진)

- (화아분화) 온도, 일장, 염수, 시비 조절 등으로 화아분화 촉진 유도
 - 자묘 유인이 완료되면 정식일 기준 60일 이상 되도록 묘령 확보
 - 자묘의 잎을 항상 3매로 유지하여 체내 질소를 낮춰줌
 - 꽃눈 분화기에 가까워지면 질소질비료를 줄이거나 중단함
- (병해충 방제) 탄저병, 시들음병, 역병, 흰가루병 등 방제 철저

※ 적엽 및 런너 제거 후에는 반드시 탄저병 방제

□ 고온 대비 대책

- (차광 및 환기) 시설하우스 차광망 설치, 환기팬 가동이나 피복재를 천창까지 열어 30℃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고온장해 예방
- (병해충 방제) 흰가루병, 총채벌레 및 가루이 등 바이러스 매개충 방제
- (엽면시비) 요소 0.2%액 또는 4종 복합비료를 서늘할 때 엽면시비

* 자료제공: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나예림 지도사(063-238-6421)

( 맨 앞으로)



제5장 과 수

1 햇볕 데임(일소) 피해 예방

☐ 햇볕 데임(일소) 발생원인

- (일소 피해) 높은 과실 온도와 강한 광선의 상호작용에 의한
 - 해에 따라 발생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,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과실에 발생
 - 피해가 심한 경우는 피해부에 탄저병 등이 2차 전염하여 피해 발생

☞ 일 최고 기온이 31℃를 넘는 맑은 날에 발생이 시작

☞ 과실 표면의 온도 차는 13시 이후 양광면이 음광면보다 약 10℃이상 높음

☐ 햇볕 데임(일소) 예방 대책

- (차광) 과실이 강한 직사광에 적게 노출될 수 있도록 정지 전정에 주의하고 이후 유인으로 가지를 알맞게 배치함
 - 사과나무 등은 햇빛차단망이나 그늘막을 설치해 온도상승 억제
- (적과) 상향 과이고 주변 잎이 적은 과일 위주로 하며, 과다 착과 주의
 - 햇빛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생육기 동안 불필요한 도장지를 제거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함
 - * 옷자람 가지 방치 시 수관 내부 햇빛 투과 방해로 꽃눈형성 불량, 과실 비대 불량, 착색 불량 등으로 상품성이 하락함
- (물관리) 관수를 적절히 하여 토양이 과습, 건조되지 않도록 함
 - 미세살수장치는 외부온도가 31±1℃일 때 가동해 잎과 과실의 온도상승 억제(5분간 뿌리고, 1분간 멈추도록 설정)



배 엽소증상



사과 일소증상



단감 일소증상

2

여름 장마철 과원 관리요령

- (수분 관리) 연속 강우 시 포도 등 과수에서는 열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관·배수 잘하여 열과 피해 예방에 노력
- (배수 관리) 외부의 물이 과원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, 배수 불량과원은 명거배수, 집수정형 배수장치 설치
- (경사지 과원) 초생재배, 부직포 등으로 덮어 토양유실 방지
 - ※ 10° 이상의 경사지는 초생재배, 10° 이하 경사지는 초생재배 또는 피복
- (강풍 대비) 나무마다 지주를 세워 고정하고 늘어진 가지는 버팀목을 받쳐줌
- (조기 수확) 숙기가 된 조생종 복숭아 등 과실은 앞당겨 수확함

3

하계전정

□ 꽃눈형성 촉진

- (하계전정) 동계전정과 달리 영양생장 억제로 꽃눈형성 촉진
 - 수관 내부 햇빛 투과를 막는 강한 웃자람가지 제거해 일조량 확보
 - ※ 단, 과도한 숙음은 2차 영양생장을 초래하므로 웃자람가지 제거에 초점
- (꽃눈형성 촉진 효과)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7월 중순경 높음
 - 수세 강한 나무에서 지나치게 일찍 하거나, 왜성에서 너무 늦게 하면 기대 효과를 얻기 어려우며, 늦게 형성된 꽃눈은 소질 불량함
 - 발육지나 웃자람가지 기부에 2~4엽을 남기고 절단하면 절단 부위에서 나온 2차 생산지의 정아가 꽃눈으로 되는 경우가 많음

4

장마 후 병 방제

□ 사과 · 배 역병

- (특징) 역병은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고, 병 발생이 시작된 과수원에서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당히 진행된 이병주는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
- (방제) 배수를 철저히 하여 병원균이 토양에서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병에 걸린 인접 과원으로부터 토양이나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

□ 사과 검무늬썩음병

- (특징) 장마기 비산된 포자는 과실 감염의 주원인이며, 포자는 25~35℃ 범위에서 8시간 동안 과실 표면이 젖어있으면 100% 발아함
 - ※ 발아된 포자의 과실 감염과 직접 관련된 부착기 형성률을 보면 30℃에서 8시간 습윤상태가 지속될 때 55%의 포자가 부착기를 형성하게 됨
- (방제 방법) 생육 전반기까지는 보호성 약제 위주로 방제하고, 장마철부터는 철저히 치료용 약제 위주로 방제

□ 사과 갈색무늬병

- (특징) 갈색무늬병의 발생률 16℃ 이하와 32℃ 이상에서는 잎에 수분 조건이 만족해도 병이 발생하지 않으나, 16~28℃ 범위에서는 수분 존재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생량이 증가
 - 특히 24℃에서는 잎이 4시간 젖어있으면 병 발생이 가능하고 8시간 젖어있으면 50% 정도의 이병율을 보임

- 장마기 강우로 포자 비산량이 증가하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날씨가 상대적으로 서늘하면 발생하기 쉬움
- (방제 방법) 여름철 갈색무늬병이 다발생 될 수 있는 조건에서는 7월 상순부터 치료용 살균제 위주의 방제가 필요

□ 복숭아 잣빛무늬병

- (특징) 7월 고온 및 잦은 강우로 습도가 높아지면 다발생 우려
- 병원균은 토양이나 병든 과실 또는 나뭇가지의 이병 부위에서 월동하여 자낭포자나 분생포자가 꽃이나 과실에 침입하여 피해를 줌

□ 포도 노균병

- (특징) 분생포자의 형성은 온도 22~24℃, 습도 95% 이상의 조건에서 가장 왕성하고, 분생포자가 어린잎, 줄기 등에서 발아하여 유주자를 만들어 잎 표면이 젖어있을 때 헤엄쳐서 기공으로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킴
- 장마기에는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서늘한 날씨가 계속 유지되면 균사 생장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음
- (방제 방법) 재배적으로는 전정 및 가지치기로 통광 및 통풍을 좋게 하여 비 온 뒤 잎이 빨리 마르도록 관리
- 생육이 연약한 경우에 발병이 많으므로 질소 과다, 토양수분의 과다를 피하고 토양을 짚 등으로 멀칭하여 병원균이 강우 시 튀어 오르지 못하도록 관리
- 약제 방제는 이병성 품종의 경우는 개화 전부터 예방 살포가 필요하고 장마철에 가장 감염이 심하므로 이 기간에 중점적으로 약제 살포

* 자료제공: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상현 지도사(063-238-6432)

 맨 앞으로)



제6장 화 훼

1 국화의 하절기 관리

- (국화) 연중 출하되고 다양한 작형이 있으나, 주요 작형은 겨울철 출하 목표의 전조 재배, 여름철 출하의 차광(빛가림)재배, 가을철 수확의 노지 재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

작형	수확기	출하기	성출하기	때 아닌 철
전조재배	12월 중순~1월 하순	12월 중순~1월 하순	12월 중순~1월 하순	2월 상순~12월 상순
차광재배	8월 하순~9월 중순	8월 하순~9월 중순	8월 하순~9월 중순	9월 하순~7월 하순
노지재배	10월 중순~11월 하순	10월 중순~11월 하순	10월 중순~11월 하순	12월 상순~9월 하순

- (하절기 관리) 여름철에는 장마철에 수분으로 인한 습해와 하절기 고온장애로 인한 기형화나 개화 지연이 우려됨



- 한여름 시설 내에서 높은 고온을 받게 되면 통상화 및 관생화가 발생하고, 생육이 왕성하면 일찍 화아분화하는 경우가 있음
 - * 관생화: 꽃 속에 작은 꽃을 포함하는 기형화
 - * 통상화: 꽃잎이 서로 붙어 대롱같이 생기고 끝만 조금 갈라진 꽃

- 여름철 고온은 생리장애 및 고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, 생식생장을 지연시키며, 엽소현상이 발생
- 6~8월에 차광망을 설치하여야 강한 햇빛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고, 차광재배 시 야간에는 차광막(암막)을 개폐하여 시원하게 해줄 필요가 있음
- 여름철 이후에는 차광망을 걷어 충분한 광선을 받아야 원활한 영양생장이 이루어져 꽃이 잘 발달함

○ (생리장애) 고온이 되면 생리장애 발생과 화색의 발현이 나빠져, 품종 고유의 특성을 낼 수 없음

- 적색이나 분홍색 계통의 색상발현에 관여하는 안토시아닌은 25℃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는 거의 생성되지 않아 화아 발달기의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함
- 관생화 발생의 요인은 계통 간에 차이가 있지만 화아분화기 주간 고온(30℃ 이상) 환경, 차광재배 시의 환기 불량에 주요 원인이 됨
- 관생화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발생이 적은 품종을 선택하고, 차광 개시 이후에는 시설 내의 주간 온도를 30℃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
- 벼들눈은 여름철 고온기에 온실 안 온도가 고온(40℃)으로 결눈이 화아 분화되지 않고 미숙 꽃눈이 되어 정상 개화하지 못하는 현상
- 장일 시기에 수일간의 기상 불량으로 광 부족 또는 단일처리 초기에 장일 조건이나 모주가 노화하였거나, 웃자란 신초를 삼수로 이용할 때 발생하기 쉬움
- 지나친 고온이나 저온을 피하고, 적절한 일장 상태를 유지하며, 건전한 모주 양성과 영양조건을 개선하면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음

○ (관생화 발생) 천수 품종의 6월 차광재배에서 차광 개시 후 4주째에 주간 온도 30℃ 이상을 56시간(1일 평균 8시간×7일) 정도 받으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짐

<주온 및 야온 제어가 '천수' 품종의 개화추이와 관생화 발생정도에 미치는 영향>

온도(℃)	단일처리 후 30℃이상 적산기간(시간)				개화 소요 일수	관생화 발생(%)		
낮/밤	20일 이전	20~30일	30~40일	계		정상	경미	심함
25/15	3.6	0	2.6	6.2	74	94	6	0
30/15	35.0	6.2	28.9	70.1	77	52	33	15
25/13	5.9	0	0.6	6.5	86	100	0	0
30/13	28.5	4.5	27.9	60.9	89	73	20	7

* 자료제공: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 준 지도사(063-238-6452)

( 맨 앞으로)



제7장 특용작물

1

인삼 장마철 대비 관리

□ 사전대책

- (통기성 개량) 유기물 함량을 2% 정도로 하여 포장의 적습 범위 유지
 - 고랑제초기를 이용하여 배수로를 정비하고 두둑을 높게 유지
- (피복물 관리) 해가림 시설의 늘어진 피복물을 팽팽하게 유지
- (피복 관리) 작토층 상면에 볏짚 등으로 피복

□ 사후 대책

- (침수 후 관리) 양수기 등을 이용하여 물을 빼주고, 깨끗한 물로 앞에 묻은 앙금을 씻어냄
 - 냇가·강가 인접 포장은 침수 발생 시 새로운 배수로를 만듦
- (수확) 6시간 이상 침수된 인삼은 미근이 자라지 않으면 곧바로 수확

□ 병해 방제

- (병해 방제) 역병, 점무늬병, 탄저병 등 각종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적기에 방제토록 하되 반드시 적용약제를 선택하고,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살포하여 줌

2

약용작물 장마철 대비 관리

□ 사전대책

- (배수로 정비) 외부에서 포장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, 포장 가운데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
- (토양유실 방지) 경사지이고 이랑 길이가 긴 경우 토양유실을 막기 위해 부초나 부직포 등으로 멀칭함
- (침수 대비)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독을 정비하고 양수기 설치 준비
 - 배수로 풀을 베고 막힌 곳 등을 정비
 - 토양 표면은 왕겨나 유기물, 비닐 등으로 덮어 상면 침식 방지
 - 지표면에 흐르는 물이 많이 모이지 않도록 배수로 분산 설치
 - 비료 성분 용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웃거름 사용 시기 조절

□ 사후 대책

- (침식 피해) 침식이 있는 경우 흙으로 채우고, 계속 침식일 경우 더 진전되지 않도록 부직포 설치함
- (침수 피해) 퇴적물을 빨리 제거하고, 배수로 재정비
 - 고인 물은 신속히 빼내도록 함
 - 잎에 묻은 흙 양금은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, 요소, 제4종 복비 등을 5일 간격으로 2~3회 엽면시용하고 살균제를 살포함

□ 병해충 방제

- (뿌리썩음병, 시들음병, 모잘록병) 토양전염성 병해는 장마기 침수 상태가 지속되고 뿌리의 활력이 저하되었을 때 발병하기 쉬우므로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함

3

버섯 장마철 대비 관리

○ 사전대책

- 버섯 재배사, 배지 재료 저장고 주변 배수로 설치
- 재배사의 물받이 청소 및 물받이 높이를 천정보다 낮게 설치
- 재배사 내 균상, 지지대, 환기창, 전기 등을 시설물 보수 및 정비함
- 외부를 튼튼한 끈으로 1.5m 간격 고정하여 재배사 파손 방지

○ 사후 대책

- 침수된 재배사는 물빼기 작업 실시하고, 재배사 주위 배수로 정비
- 침수된 느타리버섯 균상은 폐기 후 신규 재배 추진
- 침수된 영지버섯 원목은 깨끗한 물로 씻고, 그늘에 보관하여 재입상
- 파손된 균상, 지지대, 환기창 등 교체 및 보수하고 재배사 내 수시 환기 관리 철저

* 자료제공: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 준 지도사(063-238-6452)

( 맨 앞으로)



제8장 축 산

- (집중호우) 장마 대비 축대 보수 및 배수로 정비, 전기안전점검 실시
- (가축관리) 축사환경 적정 온습도 관리 및 청결 유지, 충분한 깨끗한 물 급여
- (차단방역) 농장 세척 및 소독, 방역 수칙 준수 등 가축질병 유입 방지
- ※ 가축질병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 신고(☎1588-9060, 1588-4060)

1

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축사 관리 및 가축 사양관리

□ 사전 대비

- (농장 정비)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하고, 축사 주변, 운동장, 초지·사료포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
- (안전 점검) 바람이나 비로 인한 누전 등 전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축사 내 전기 안전 점검 실시, 사료는 비 맞지 않는 곳에 보관

□ 사후관리

- (사료 관리) 사료는 곰팡이로 인한 변질과 부패가 없는지 자주 살피고,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저녁에 조금씩 자주 먹여 관리
- (비타민과 광물질 급여) 깨끗한 물과 함께 축종별 적정한 비타민과 광물질을 별도로 보충하여 가축 건강 상태의 면밀한 보살핌
- (습도 관리) 바람이 잘 통하도록 주변 장애물을 옮기고 송풍팬을 틀어 40~70% 범위 내 적정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
- (축사 바닥 관리) 젖은 깔짚은 제거하고 충분한 양의 마른 깔짚을 깔아 축사 바닥이 젖어지지 않도록 관리
- (질병 전파 차단) 사육밀도를 낮추어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고, 소독시설 가동 점검 및 시설 파손 여부를 점검하여 질병 전파 차단
- * 기존 사육밀도 대비 평균 10~20% 낮춰 관리(돼지 90%, 닭 80% 수준)
- (침수 후 관리) 침수된 장소의 물을 빼내고, 유기물 등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환경에 맞는 적절한 소독제를 살포하여 축사와 가축 위생에 주의

2

가축 질병 예방 및 차단방역

○ (SAT1형 구제역) 중국 SAT1형 구제역 발생에 따라 국내에서도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국내 우제류(소, 돼지) 농가에서는 차단방역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함

-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던 SAT1형 구제역이 중동·튀르키예를 거쳐(' 25) 올해 중국*·이스라엘 등에서도 발생

* 2개 지역(신장위구르, 간쑤성) 발생 발표(3. 28., 중국 농무성 홈페이지)

- SAT1형은 국내에서 접종 중인 상시 백신 유형이 아니므로 국내 유입 시* 확산 및 대규모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

* 중국 내 발생에 따라 인적·물적 교류, 접경지역 등을 통해 국내 유입 가능성 증가

○ (백신 접종)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 구제역 백신을 반드시 접종하도록 함

▶(접종 전) 방역복, 장화, 장갑 착용 후 축사마다 환복 원칙 준수, 백신을 사용하기 전 유통기한과 백신 사용 설명서 확인

▶(접종 시) 백신접종 요령 준수, 주사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

▶(접종 후) 접종 후 인력·차량·사용 물품에 대한 세척 및 소독 철저

○ (가축 질병 예방) 농장 출입 시 소독 철저,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, 축사 내부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

- 축산 관계 차량은 되도록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, 부득이한 경우 차량 전체, 특히 바퀴 및 하부 등을 추가 세척·소독

- 소독 효과 제고를 위한 발판 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기도록 운영

- 장화를 축사 내부/외부용으로 구분하면,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

- 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계열의 소독제 혼합사용 금지

- 소독제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 병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동물용으로 허가한 제품을 선택

- 사용 설명서의 소독제 희석 농도, 적용 시간, 유효기간 등을 준수

하며, 소독 대상 표면이 소독제와 접촉될 수 있도록 충분히 뿌림

- 사용 설명서의 소독제 희석 농도, 적용 시간, 유효기간 등을 준수

하며, 소독 대상 표면이 소독제와 접촉될 수 있도록 충분히 뿌림

* 동물용 의약외품(소독제)은 농림축산검역본부[<http://www.qia.go.kr>]에서 확인 가능

- 단위면적 당 사육두수를 평시보다 10~20% 줄여 온도상승을 줄임
- 사료는 조금씩 자주 급여하고, 사료조를 위생적으로 관리함
- (해충 발생 방지) 농장 안팎 정기적으로 소독, 축사 주변 잡초와 물웅덩이를 제거하여 해충 발생 방지
- (고온에 따른 가축 증상) 일반적으로 27~30℃ 이상의 고온이 계속 되면 가축 체온 상승, 음수량 증가, 사료 섭취량 감소로 가축의 증체량 감소 및 번식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하면 가축이 폐사함
<가축의 적정온도 및 고온 한계온도>

구분	한육우	젓소	돼지	닭
적온	10~20℃	5~20℃	15~25℃	16~24℃
고온 한계온도	30℃	27℃	27℃	30℃

- (여름철 급수 관리)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급수량과 급수조 청결을 항상 유의해 관리
- (여름 사료 관리) 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적정량 구매하고, 건조하게 보관, 사료조의 위생적 관리가 필요
 - 사료빈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빈 외벽에 열차단 단열재를 설치하거나 흰색 페인트 등을 칠하면 도움이 됨
- (환기팬 청소) 환기팬에 먼지, 거미줄이 과다하게 조성되는 경우 10% 이상의 성능 저하가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청소와 벨트 점검 필요

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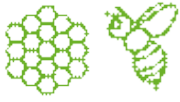
여름철 축사 전기화재 및 정전 예방

- (여름철 축사 관리) 여름철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는 냉방기와 환기시설 사용급증으로 과도한 전력 사용으로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
 - 플러그 및 콘센트 정기 점검, 낡거나 손상된 전기기구 즉시 교체
 - 전기기구 접촉 상태 주기적 확인 및 주위의 먼지·거미줄 제거

- 공인된 안전 인증을 받은 전기기구 사용
- 콘센트나 소켓 하나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연결하지 말아야 함
- (자동화 시설 관리) 자동급이기 및 환기시스템 등 전기 자동화 시설이 설치된 축사는 정전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
 - 정전 발생을 알려주는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음
 - 무창돈사 및 계사는 정전으로 환기팬 작동이 멈추면 질식사 위험이 커지므로, 정격전류 초과로 발생하는 전원공급 차단에 대비하여 주기적 점검
 - 비상시 대비 소요 전력량의 120% 용량의 자가발전기를 확보하고, 주 1회 이상 연료 점검과 발전기 상태를 확인
 - 비가 잦은 시기에는 배전반과 전기 구동장치 주변에 물이 새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점검
 - 낙뢰 위험이 큰 고지대나 산간에 위치한 축사는 반드시 피뢰침 설치

* 자료제공: 국립축산과학원 이소영 지도관(063-238-7205)
장면주 지도사(063-238-7206)

( 맨 앞으로)



제9장 양 봉

1

장마철 봉군 관리

- (빗물 유입) 비가 벌통에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, 벌통 뒤쪽을 약간 높게하여 벌통을 비스듬히 배치하여 벌통 내부에 습기나 빗물이 고이지 않고 벌통 입구를 통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함
- (설탕물 공급) 무밀기와 비로 인해 일벌이 외부 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므로 설탕물(설탕 1:물 1) 공급이 필요함
 - 벌무리의 세력에 따라 매주 2회씩(1회당 1~2l) 공급하고, 세력이 약한 벌무리에 너무 많은 설탕물을 공급하면 설탕물이 남게 되고 도봉(도둑벌)의 원인이 되므로 세력에 따라 설탕물 공급을 적절히 해주어야 함
 - 외부 화분원이 부족할 시에는 화분떡을 공급함하고 장마철에는 화분원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화분떡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으나 화분떡을 한꺼번에 많이 공급할 경우, 화분떡에 곰팡이나 소충(꿀벌부채명나방 애벌레)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봉군 세력에 알맞은 양을 공급해야 함

2

피나무 개화기 채밀군 조성

- (피나무 개화기) 강원도 홍천 및 인제지역 중심으로 피나무 분포가 많아 일부 이동 양봉 농가는 피나무꿀 채밀을 위해 피나무 단지로 벌통을 이동함
- (채밀군 조성) 개화일 기준 40일 전에 산란된 벌들로 외역벌을 최대한 확보하고, 부족할 시에는 합봉(봉군 합치기)하여 조성함

3

인공분봉 및 교미상 관리

- (인공분봉) 이번 주가 마지막 처리 기간으로 최대한 빨리 왕대(여왕벌 번데기)를 유입하여 9월까지 증식해 월동자격군(월동이 가능한 벌무리)을 확보해야 함
 - 일반 벌통을 이용하는 경우, 4군 격리 교미상으로 제작할 수 있고, 4군 격리 교미상은 벌통 내부를 4등분 하여 각각의 격리판에 2겹의 프로폴리스망을 단단히 고정하여 4개의 공간을 만들어 이동을 차단함
 - 기존 벌통은 10매의 벌집이 들어갈 수 있고, 이를 4등분한 교미상에는 각각 2매씩 넣을 수 있음
 - 4군 격리 교미상에는 각각 벌집 전체가 밀개(꿀을 저장하고 밀랍으로 덮은 상태)될 정도로 꿀 저장이 양호한 먹이 벌집 1장과 벌집 전체가 번데기방으로 채워진 출방 직전의 봉개(입구를 막은 번데기)된 벌집 1장을 넣어 4개의 공간에서 각각 2장의 소비가 투입
 - 교미상에 투입되는 일벌들은 어린 벌들로만 구성하여 육아 및 여왕벌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. 여왕벌은 갓 태어난 여왕벌을 넣기보다는 출방이 임박한 왕대(여왕벌 번데기)를 붙여 교미상 내에서 여왕이 깨어나야 일벌들이 여왕벌을 잘 받아주고 보살핌
- (교미상) 해 뜰 무렵과 해 질 무렵에 벌통을 검사하여 장마철 및 무밀기 도둑벌 피해로 인한 여왕벌 망실피해를 막음. 지나친 벌통 검사는 여왕벌의 교미 시기를 늦추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벌통 검사 간격을 최대한 늘리고, 처녀 여왕벌의 교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벌통 검사 시 여왕벌의 산란 유·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음. 또한 여왕벌은 확인이 쉽도록 등쪽 가슴에 페인트 마커를 표지하는 것이 좋음(분봉기에 분봉 예방을 위해 날개를 자르기도 함)

4

로열젤리 및 프로폴리스 생산

- (장마철 관리) 로열젤리 생산 가장 힘든 시기인 장마철에는 비가 계속 내리면 로열젤리 생산을 중단하고, 휴지기간 동안 약해진 벌무리와 이충(애벌레를 왕대로 인위적으로 이동시킴)용 유충 공급 벌무리의 회복을 도모함
 - 충분한 설탕물과 화분떡을 계속 공급하여 가상의 유밀기를 조성함
- (프로폴리스 채취) 벌집 상단부와 측면 뼈대에 붙어 있는 프로폴리스를 내검칼을 이용하여 채취하고, 형겔 덮개 및 전용 프로폴리스망으로 채취할 경우는 망을 회수하여 냉동고에 얼린 후 채취함
 - 채취는 새벽부터 아침 시간 이용하면 달라붙지 않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으며, 낮 기온이 올라가면 채취에 불편함

5

꿀벌응애류 및 개미 방제

- (꿀벌응애) 양봉 산물 생산을 고려하여 방제 방법을 선택하고, 계획적인 방제와 여름철 지속적인 종합관리로 증식을 억제함
 - 무밀기에는 양봉 산물 생산보다 응애 방제 등을 통한 월동 벌무리 증식에 집중해야 이듬해 채밀군 양성에 성공할 수 있음
- (개미) 장마철 전·후로 개미가 발생하므로 벌통 뚜껑이 젖지 않게 하고, 양봉장 주변에 개미들이 모여들지 않도록 벌통 주변에 설탕물이나 밀랍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결에 힘써야 함.
 - 개미들이 벌통 벽을 타고 올라오는 경우, 개미 기피제 등을 벌통 벽면이나 벌통 뚜껑 주변으로 처리함

* 자료제공: 국립농업과학원 이수진 연구사(063-238-2846)

( 맨 앞으로)



발 행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

작성자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이우일

국립농업과학원 심교문, 이수진

국립식량과학원 이승규, 이다람

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 준, 나예림

장상현

국립축산과학원 이소영, 장면주

편집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윤성환, 배선아

전 화 063-238-0986, 0992



Rural Development
Administration

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